

세균성이질이란 ?

- 실온에서 24시간 방치되면 현저하게 균수가 감소하며, 체외독소를 만들어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음
- 어떻게 감염되나 ?
 - 사람만이 병원소이나 원숭이 집단의 유행도 보고된 적이 있음. 환자나 보균자에 의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대변 - 경구전파
 - 매우 적은 양(10~100개)의 세균도 감염을 일으킴.
 - 전파를 시키는 사람들이 배변 후 손톱 밑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때문. 이들은 음식을 오염시켜 간접적으로 전파하거나,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킴. 식수, 우유, 바퀴벌레, 파리에 의한 전파도 있음.
- 감염되었을 경우 증상은?
 - 고열과 구역질, 때로는 구토, 경련성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. 균종이나 환자의 감수성에 따라 경하거나 증상없이 지나기도 함.
 - 증상은 보통 4-7일이 지나면 회복됨. S. dysenteriae가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, S. flexneri, S. sonnei로 갈수록 임상증상이 약해짐
- 환자·접촉자 관리는?
 -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관배설물의 위생적 관리를 요하며, 감염된 환자의 경우 식품취급, 탁아, 환자간호를 금해야 함. 대변과 오염된 물건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됨.
- 예방대책은 ?
 - 상하수도 완비와 음료수 정화, 염소 소독이 관리에 있어 중요
 - 음식을 만들기 전 또는 배변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.
 - 유행지역에서는 물을 반드시 끓여먹고, 식품을 적절히 냉동하고 항상 청결 유지
 - 청결 정도가 불분명할 때는 식품을 선별하여 조리하거나 익혀서 먹고, 과일의 껍질을 벗겨 먹음.
 - 보균자는 식품을 다루는 업무나 환자의 간호에 종사해서는 안 됨.

손만 깨끗이 씻어도!

■ 세균성이질이란?

세균성이질은 급성염증성결장염(colitis)으로 감염력이 비교적 강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국한된 지역사회 수준의 대·소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전염병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수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1950년에 항생제의 도입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감소경향을 보였습니다. 1세~4세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,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.

■ 세균성이질의 감염경로

환자나 보균자가 배변 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거나 긴 손톱 밑을 통하여 간접 전파되거나 대량 보급되는 식수나 우유제품,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집니다. 화장실 문의 손잡이나 환자나 보균자가 사용한 타월 등에 의해 감염되기도 합니다.

■ 세균성이질의 증상

- 고열과 구토, 경련성 복통이 나타납니다.
- 배변 후 뒤가 묵직하거나 불편감을 동반한 설사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.
-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서 나옵니다.
- 어린이들에게 전신적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.

세균성이질의 예방법

- 세균성이질 환자는 반드시 격리치료 합니다.
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전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오염된 물건은 철저히 소독합니다.
-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습니다.
-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와 학교에 신고합니다.



2008 년 ○ 월 ○ 일

○ ○ ○ ○ 학 교 장